하나님 모방은 양날의 검이다

(엡5:1~5)

1.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3.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4.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5.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모방은 양날의 검이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 모방은 양날의 검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방하다가 죽기도 하고 또 살게 되기도 합니다.
모방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본성적인 측면이 있는 그런 특성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위인을, 스승을, 그리고 부모님, 성공한 사람을 본받는다, 이 본받는다는 말이 본문에 나오는데 이게 바로 모방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넥타이를 매고 있는데, 이 넥타이 디자이너에게서 나온 말 중에 기억나는 것은 자연에서 모방을 한다고 해요.
넥타이의 색깔과 무늬는 자연이 영원불멸하는 가장 좋은 넥타이디자인을 찾아낼 수 있는 텍스트라고 합니다, 자연을 모방하는 거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언어나 음악이라고 하는 것들도 자연을 모방하면서 원시의 상태에서 문명인의 상태 문화인의 상태로 인간이 탈바꿈할 수도 있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이건 우리 실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예에요.
목사님 같은 분들도 어느 한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분을 계속 따라하다 보면 자기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가 한 경직 목사님과 박 조준 목사님일 겁니다.
박 조준 목사님이 한 경직 목사님의 말투를 그대로 따라하셨습니다.
그게 나중에 보니까 말투에 있어서 박 조준 목사님의 고유한 당신의 색깔이 설교에 나오는 거예요.
곽 선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설교집을 200권 이상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설교하지 마라' 이게 다 모방에서 창조가 나온다는 말씀을, 목사님들의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자로서의 특성에 맞추어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모방에서 창조가 나오는 겁니다, 일단 내 속에 있는 자질이 모방을 통해서 쉽게 이끌려져 밖으로 나오는 거죠.
모방을 하지 않으면 분출할 계기를 찾지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고등학교 때 박 조준 목사님을 그렇게 흉내 냈어요, 아무도 없을 때는 문을 다 닫아걸고 혼자서 박 조준 목사님 흉내를 그렇게 냈습니다.
지금은 그분의 말투 같은 것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때 박 조준 목사님은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 흉내 내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 제 설교는 제가 들어봐도 멋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제 특성인 것 같아요.
하여간, 창조다 유행이다 진보다, 이러한 인간사회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바로 인간의 모방욕구에 의해서 가능하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에도 얼마나 모방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무소불위의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무소불능의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어떻게 모방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소불위는커녕 조그만 것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까?
아니면, 소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혜가 있습니까?
또, 좀 다르게 얘기하면, 인간세상에서 본받으라, 본받으라고 할 때 주로 되는 얘기의 내용처

럼, 무슨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갖고 계시면서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매진하시며 열정적으로 그것에 매달리시며, 절망 가운데서도 칠전팔기의 오뚝이 정신으로 기어코 낙심하지 않으시고 이루어내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래서 그분을 본받으라는 얘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주제넘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본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처럼 그런 권세도 없고 전능한 능력도 전지한 지혜도 없고, 인간들이 좋아하는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도 그런 걸 이루셔야 성취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본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도 본받았어요.
무얼 본받았느냐?
이 본받는다는 말이 헬라어로 '미메테스'인데 흉내를 낸다는 말입니다, 모방자라는 뜻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권면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한 겁니다.
사도바울이 본받으라고 한 것과 똑같아요.
무얼 본받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좋으신 것과 당신에게 나쁘신 것을 판단하십니다.
당신에게 좋으신 것을 우리는 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마음에 좋게 여겨지는 걸 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마음에 좋지 않게 여겨지는 것, 나쁘다고 판단되는 것을 우리는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호불호, 선악의 판단, 이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나름대로 하나님처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악의 판단을 따라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면 나도 좋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시면 나도 나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사탄이 와서 한 말은 그렇게 추종하지 말고 모방하라고 얘기합니다.

추종과 모방은 다릅니다, 그렇죠?
추종은 그의 의견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모방은 그와 같이 하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나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악을 판단했고, 그래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다가 망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독단적으로 내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좋은 것과 나쁜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 판단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가면 됩니다.
아무리 안 좋게 보이는 상황이 주어져도, 아니면 좋게 보이는 상황이 주어져도 하나님이 안 좋다고 하시면 안 좋은 것이고 좋다고 하시면 좋은 겁니다.
그걸 따라갔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추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방하느라고 나도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끊어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바울이 다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선악과로 타락한 사람들에게 십자가로 회복되어진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로 모든 사람이 타락했지만 그 중에서 십자가복음으로 회복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죄 짓기 이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죄 짓기 이전의 상태에서 마귀가 아담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한 것처럼 사도바울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면을 본받습니까?
인간을 대할 때에 본받으라는 얘기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랑을 대하라'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걸 그대로 모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실 때 모방하는 것도 사실은 이미 많이 모방하고 있어요.
지배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건 다 하나님의 권세가 왜곡되게 모방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걸 모방하면서 따라온 부수적인 모방의 요소들이 다 왜곡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대하시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은 당신이 부족하신 게 어딘가 있으셔서 사람을 통해서 그걸 얻어서 채우려고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 안에서 언제나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실 때는 사람으로부터 무얼 얻으려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면서 대하십니다.
이 점을 바로 본받으라는 얘깁니다.
십자가복음으로 회복된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냄으로써 내 부족함을 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빈 것으로 창조하셨고 그 빈 곳을 채워주시려고 관계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의 빈 곳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언제나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그 빈 곳을 채워주려고 사람을 관계하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본받으려고 해도 본받아지지가 않습니다.
가장 숭고하고 타산적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도 그 내막을 다 양파껍질 벗기듯이 벗겨놓고 안을 들여다보면 자식을 훌륭하게 키움으로써 나의 빈 곳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식을 통해 이루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자식이 잘 됨으로써 얻게 되는 영예가 있습니다, 부모한테.
또 우리가 하는 희생이다 구제다 봉사다 하는 모든 것도 사실은 내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다, 거기에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나를 채우기 위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를 위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내막을 까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봉사도 구제도 다 마찬가지로 나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활용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습니까?
그래서 본문 1절에 하나님께 사랑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사랑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녀는 하나님께 뭘 받았습니까? 사랑이라는 추상성을 받은 겁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내 마음 빈 곳에 채워 넣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지으셨느냐? 채워주려고 지으셨습니다.
채워주려고 지으셨기 때문에 비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 빈 곳을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주심으로써 채우고,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당신 자신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심으로써 충만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으로 배부른 상태가 된 자라야만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빈 곳을 찾습니다.
아니면 나의 빈 곳에 의해서 그 사람이 빨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다 라든지, 재물이라든지 하여간 뭐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빈 곳을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외로워서 친구에게 전화를 한다,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만나는 것 아닙니까?
애인을 사귀어도 마찬가지에요.
모든 게 다 비어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으로 참으로써,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빈 곳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의 빈 곳만이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사람을 관계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만나셔서 하신 것 중에 인간들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채우려고 하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에요.
자, 그러면 우리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을 한번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어? 이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어놓으시고는 요구하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인간을 통해서 얻으시려는 게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사람에게서 찬송을 들으시면서 기뻐하려 하신 게 아니냐?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인기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도 바로 우리 인간들이 당신을 그렇게 찬송함을 통해서 채우시려는 무슨 빈 곳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오해에요.

여기서 '나의 찬송'이라고 할 때의 찬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 빈 마음을 하나님이 가득히 들어오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 손에 쥐어진 현찰만큼이나 하나님이 현실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거죠.
또 성령의 역사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어진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손에 쥐어진 현찰처럼 하나님이 마음에 가득 느껴지게 하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히 들어오셔서 내 마음이 만족할 때 저절로 탄성이 나옵니다, 이 탄성이 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백성을 지으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신 자신을 주신 다음에 당신 자신을 내 기업으로 받은 인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펄펄 뛰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그 말은 다시 말해 당신 자신을 가짐으로써 인간들이 기뻐하는, 아들하나님을 마음 안에 가득히 들이심으로 기뻐하시고, 아버지하나님을 마음 안에 가득히 들이심으로써 기뻐하시는 삼위일체 되심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인간도 같이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득 찼을 때 느끼는 만족과 기쁨에서 나오는 탄성인 겁니다.
저는 이 강릉 해변에서 바라보는 바다, 특히 소나무 줄기 사이로 보이는 바다, 볼 때마다 탄성을 내뱉습니다.
하얀 눈꽃으로 덮인 대관령, 아름답잖아요, 탄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탄성이 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동해바다의 하얀 파도와 파란 물을 보면서, “야아!” 탄성이 나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차있을 때 “야아!”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탄성이 우리의 생활현장 속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변합니까?
감사의 말로 변해요.
오늘 본문에, 무슨 농락하는 말 희롱하는 말, 이런 거 하지 말고 감사의 말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탄성이 감사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히 찬 상태에서 삶을 살아갈 때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한 자라야 밖에서 모든 상황과 사건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시한 들꽃, 백합화 한 송이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시고 하나님을 발견하신 이유는, 당신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나오게 돼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해서 부딪히는 모든 사건과 사물의 배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내뱉는 탄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할 때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 관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사건도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한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아요.
어떻게 삽니까?
마음속에 가득히 채운 것이 있어요.
본문에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상숭배, 하나님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채워 넣어야 될 사람들에게 왜 이런 게 생깁니까?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에베소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데미 여신을 우상숭배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전체가 아데미 여신숭배로 편만한 상태였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이 어떻게 생겼나 하면, 유방이 24개에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거죠.
한 번에 아이를 스물넷을 낳는 것처럼 풍요와 다산을 바라는 마음이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놓고 집집마다 아데미 여신의 조그마한 미니여신상을 다 갖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사도바울을 모함해서 온 시내가 요동을 했다고 했어요, 에베소가 아데미 여신의 중심지였거든요.
결국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들어온 겁니다.
마음에 돈이 들어왔을 때 아데미 여신으로 나타나고, 아데미 여신을 숭배해서 음행이 자행되었습니다, 더러움과 역겨움이 자행된 것이에요.
이 아데미 여신의 축제가 5월에 있는데, 그 문란함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의 삶을 아예 이젠 쳐다보지도 말도 꺼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내 마음에 만족할 것을 찾아 헤매는 그런 삶을 끝내지 않으면, 그래서 무언가 마음에 집어넣고 나면 반드시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의 이방종교의 우상숭배로 빠져버리고 말 것이라고 경계해 주는 겁니다.
모두 단절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라.
그래서 신령한 노래,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삶 속에 들어가면 그저 감사만 하면서 살 수 있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모방은 양날의 검입니다.
선악 판단하는 걸 모방했다가는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의 삶이 죽어버리고 우리의 생명이 끊어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실 때 아무것도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채워주시기만을 위해서 관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십자가를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게 해주시고 생명이 풍성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약속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 하나님을 모방하되 양날의 검인 것을 알고 나를 해치는 모방 대신에 나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 하나님 모방을 날마다 반복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